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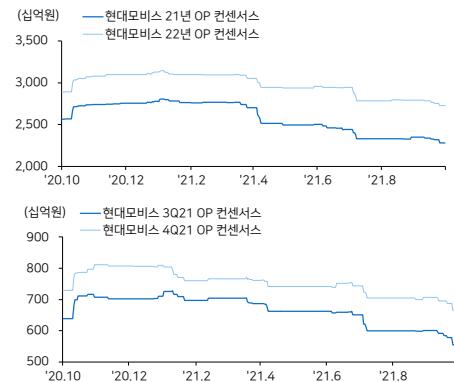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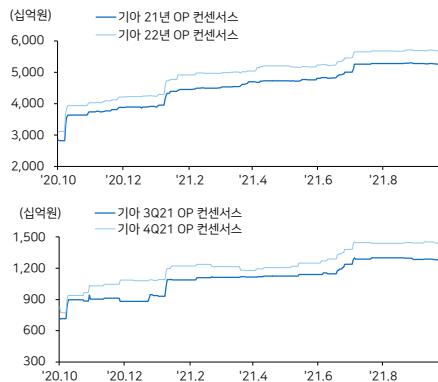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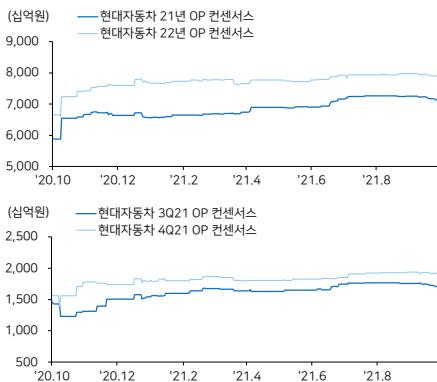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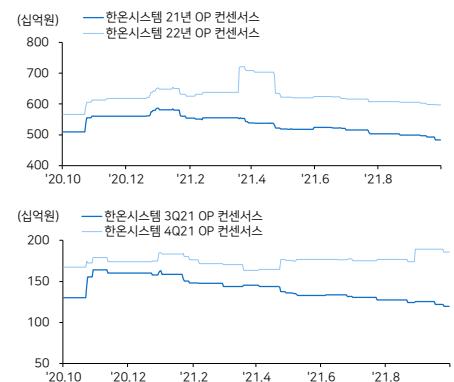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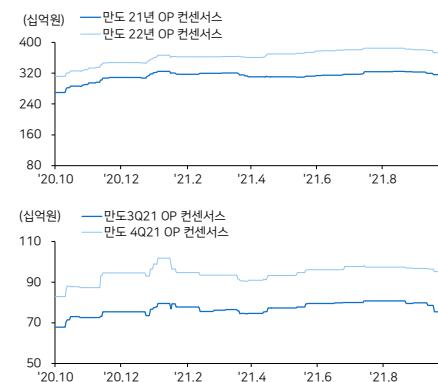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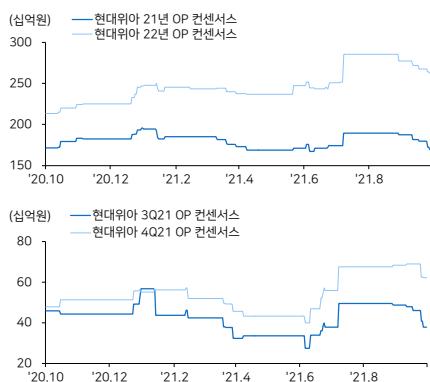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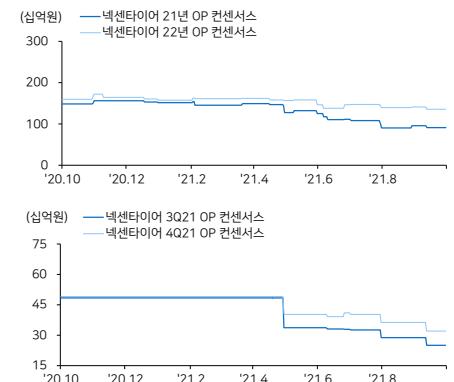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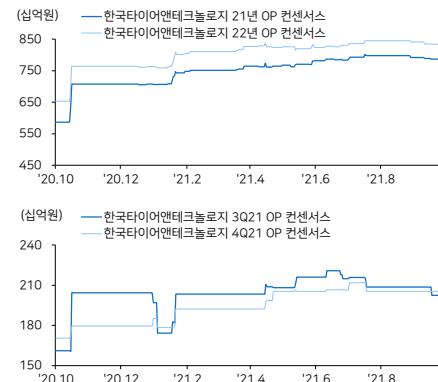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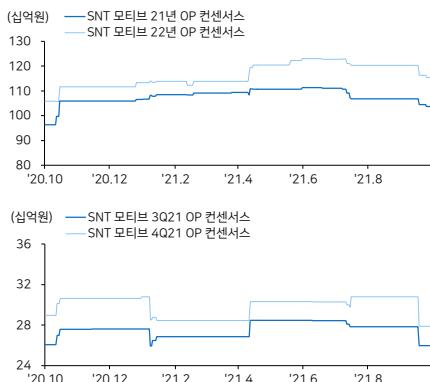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제네시스 美 돌풍...수출 6배 경쟁 (파이낸셜뉴스)

올해 현대차 제네시스의 수출 규모가 코로나19 유행과 반도체 공급난 심화에도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작년 보다 6배 가까이 급증함. 특히 SUV 라인업인 GV70, GV80 모델이 현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인기.

<https://bit.ly/3ppmmJK5>

수소차 밀어붙이는 현대차·도요타 "현타 맞을까 대박 칠까" (더스쿠프)

지난 4월 예상세대스-벤즈를 시작으로 올 초 폭스바겐과 혼다, BMW까지 잇따라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개발을 중단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수소차 개발을 강행 중인 현대차와 도요타의 행보에 관심이 주목됨.

<https://bit.ly/3nkfQGk>

한국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장착 폭스바겐, 美 대량 주행 신기록 (뉴시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장착한 폭스바겐의 'ID.4 미국 투어' 프로젝트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ID.4 차량에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 '멘투스 S1 에보3 EV'를 OE로 공급 중.

<https://bit.ly/3G7GpHn>

화웨이, 폭스바겐과 자율주행 합작사 만드나 (아주경제)

화웨이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자율주행 관련 합작사를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으나, 화웨이는 이를 부인. 그러나 이미 구축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업계에선 합작사 설립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

<https://bit.ly/3AY2ncC>

기아 'EV6' 내년 1월 러시아 출시... "유럽 인기 있나" (THE GURU)

기아 CIS 권역부문은 내년 1월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EV6 판매를 시작할 계획. 이를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으로 속耨힘. 기아가 EV6 현지 판매를 앞당긴 이유.

<https://bit.ly/3GavEEf>

현대차 브랜드 가치 152억달러...35위로 1계단 상승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yoy 6% 증가한 152억달러로 늘어남. 글로벌 35위를 기록하며 7년 연속 30위권을 유지. 아이오닉5로 전기차 시장 성공적 험경과 UAM/로보택시/자율주행 등 기민한 미래 모빌리티 대응력을 평가받음.

<https://bit.ly/3C6obUe>

Dutch forensic lab says it has decoded Tesla's driving data (Reuters)

네덜란드 정부의 법의학 연구소는 테슬라의 운전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해독하여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데 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발견했다고 밝힘. 기준에 알려진 것보다 월등 더 많은 데이터를 발견.

<https://reut.rs/3ngCkbj>

테슬라 사이버트럭 포착...탈부착 가능 사이드미러 탑재 (THE GURU)

테슬라가 내년 말 출시 예정인 첫 픽업트럭 '사이버트럭(Cybertruck)' 프로토타입이 포착됨. 기존 사이버트럭 시제품에서 볼 수 없었던 탈부착 가능 사이드 미러와 RWS가 탑재. 법적으로 사이드미러가 요구되기에 탈부착 방법을 선택.

<https://bit.ly/3njw5t5>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